

서천군, 3월3일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한다

서천군이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매달 분할 지급해 농업 경영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받게 된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4월부터 매월 월급 형태로 지원된다. 농업인 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 특화작목 재배 농가이며, 지급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에 이뤄진다.

농협이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은 군이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읍·면 복지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매장유산의 행정가이드 인공지능 다-헤리티지

대전시는 매장유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다-헤리티지(D-Heritage)'를 개발했다. 애플리케이션은 실무 학예연구사가 개발한 것으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매장유산은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으로, 토기와 같은 유물뿐 아니라 옛 건물지, 무덤, 배수로 등 과거 인간 활동의 흔적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굴 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유산 영향 진단 등 사전검토와 전문 기관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여부 판단과 절차 이행 과정이 복잡하여 법령 적용과 행정 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다-헤리티지'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업 단계, 사업 면적, 주변 문화유산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입력하면 '국가유산영향진단' 등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단계별 이행 사항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시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재봉 기자

일상이 문화로, 문화가 삶이 되는 축제

칸막이 없던 8개 부서 통합 홍보TF 운영... '중구다움' 브랜드 가치 극대화



대전 중구는 연중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합해 중구를 찾는 사람들이 '중구다움'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도록 통합 홍보에 나선다.

특히 중구가 품고 있는 대전의 근대 문화유산과 상권, 축제를 연결 축제가 1회 성 행사가 아닌 '중구 축제'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중구를 알리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의 축제 통합 홍보 계획이 주목 받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축제 관련 8개 부서가 통합 홍보TF를

구성 체계적인 축제 홍보에 나서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구, 축제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1차 통합 홍보에 나선데 이어 올해는 축제와 함께 지역의 자원과 문화, 예술, 상권까지 연계한 종합 축제 기획을 통해 '일상이 문화로, 문화가 삶이 되는 중구 축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24일 '2026 중구 축제 통합 홍보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구다움'이라는 중구의 정체성을 확립해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

련됐다. 축제는 계절과 주제에 맞춰 연중 쉴 틈 없이 이어진다.

▲5월에는 온 가족이 즐기는 '어린이날 행사'와 '온마을 가족 피크닉' ▲4월부터 10월까지의 우리들공원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걸거리 문화공연(버스킹)' 등이 이어진다. ▲9월은 중구의 역사와 열정이 집중되는 '축제의 달'이다.

9월 초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지는 '대전 중구 국가유산 야행(중구 원도심 야행)'을 시작으로, 중구의 상징인 '제17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9월 말 예정)'가 이어진다. 또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신체호 마라톤 대회(9월 중순 예정)' 등이 잇따라 개최된다. ▲10월에는 중구의 자연을 만끽하는 트레일 러닝 대회인 'D-Trail(10월 예정)'과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사정성 축제' 등이 중구 온마을축제가 열려 연중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김재선 중구청장은 "성심당, 야구장 등 중구만의 대표 콘텐츠와 축제를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여 '찾아오는 중구'의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봉 기자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 녹색자산으로 우뚝

산림재난 대응강화 및 경영 성과 가시화로 2026년 명품산림 육성에 집중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올해 총 193억 원의 사업비를 도유림에 투자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미래 세대가 누리는 '충북형 명품 산림'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도유림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시설 93개소를 확충하고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산림 재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조립 50ha, 숲가꾸기 220ha, 임도망 확충(신설 0.8km, 보수 8.5km) 등을 통해 가시적인 경영 성과를 일궈냈다. 연구소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에도 도유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올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 전문진화대가 개편돼 새롭게 시작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을 중심으로 각종 산림 재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감시 인력 운영과 드론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 및 대책상황실 가동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진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도유림(23,917ha)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익형 산림경영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조립 사업은 기후 위기에 강한 우량 경제림 및 밀원숲을 63ha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160ha 규모의 조립지가꾸기 및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경영의 기반인 임도망 확충(신설 2.9km 및 보수 8.5km)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여 도유림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성장 자산'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기후 이변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비해 도내 재해 우려 지역 37개소를 대상으로 사방 사업을 우기 전 조기 완

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존 시설 1,682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방범 준설 작업 등 빈틈없는 사후관리에 주력해 기상적인 집중호우에도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영욱 연구소장은 "지난해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유림의 가치를 굳건히 다진 해였다면, 2026년은 그 결실을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해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숲의 혜택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녹색자산'으로 선 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유기동물의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정착과 보호동물의 조기 입양 촉진을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1인당 무상급식 단가4% 증액한다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품질 향상·농가 지원확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학생 1인당 평균 무상급식 단가를 4% 증액한다.

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포함) 172개교 6만 7,498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28억 8,461만 원 규모의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무상급식의 경우 시·교육청이 식품비를 각각 50%를 부담하고, 세종산 농축산물 및 지역제조 가공품 현물 지원은 시가 전액 지원 중이다.

올해 무상급식비는 지난해 474억 3,070만 원에서 3억 3,853만 원 증액한 477억 6,923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108개교 6만 1,623명에게 지급되는 학생 1인당 평균 무상급식 단가는 3,920원에서 4,080원으로 전년 대비 4.08% 늘었다. 또한, 세종산 현물 추가 지원 사업에는 44억 4,918만 원을 투입해 세종산 쌀과 한우, 딸기·포도·배 등 계절

과일, 지역 제조 가공품 등 28개 품목을 현물 지원한다.

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6억 6,620만 원을 들여 1인당 지원 단가를 전년도 610원에서 올해 630원으로 늘렸다.

시는 올해에도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추진, 40개 업체의 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725건을 정밀 검사한다. 특히 잔류농약과 방사능, 중금속 등 품목별 특성에 맞춰 농산물은 주 2회, 수산물은 주 1회, 가공품과 축산물은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희산 국장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지역 농업과도 직결된다"며 "급식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학생과 농업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평균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재봉 기자

예방 중심 위생관리 '식생활 안전'



충청남도가 도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위생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6년 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식품·공중 사업추진계획 설명 △시군 특수시책 발표 △현안사업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식품·공중위생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및 내실화 △맛집 홍보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 요리경연대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올해부터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며, 포상(인센티브),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해 위생등급

업소 740곳을 신규 및 재지정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학기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집중관리시설 예방 교육·홍보 및 대규모 행사장·축제장 식품 점검, 담당자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군은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천안시) △전통시장 식품표시사항 표준화(공주시)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잇(eat)다(계룡시)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형물 정비사업(금산군) △2026 '충남 방문의 해' 대비 위생 및 친절교육(부여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요 특수시책을 공유했다.

현안사업 협의 등 종합토론에서 도와 시군은 식품위생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진 기자

소망을 담아, 새로운 시작을!

설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꿈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강남구의회의원 일동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